

전주시, 대규모 소비촉진운동 추진

내달 26일까지 시민·800여개 업체와 '전주 착한 소비다'·'착한 큰장터'·'착한 아티스트' 등 전개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민과 지역업체가 함께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를 본격화했다.

시는 지난 26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주착한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민, 800여개의 지역업체와 함께 소비촉진운동에 돌입했다.

다음 달 26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는 전주착한캠페인의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시는 '전주 착한 소비다(多)', '착한 큰장터', '착한 아티스트' 등 다채로운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전주 착한 소비다(多)'의 경우 지역의 의식업 500개소와 슈퍼마켓 200개소, 숙박업(호텔포함)80개소, 전통시장

과 주요상점가 등 총 8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대규모 합인행사를 진행한다. 참여업체들은 상품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 전반적인 소비 촉진을 유도하게 된다.

합인행사에 참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착한소비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상품의 이미지와 영수증 사진을 찍어 3일 이내에 본인의 SNS에 사진과 해시태그 #전주착한캠페인 #영수증포이벤트 #전주착한소비를 올리면 이벤트 #전주착한소비를 올리면 이벤트에 자동으로 참여된다. 당첨자의 경우 다음 달 11일 열리는 착한 큰장터 행사장에서 경품을 수령할 수 있다.

동시에, 남부·신중앙·모래내·서부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은 어르신과

임산부 등의 소포를 돕기 위해 짐을 들어주는 '착한 슈퍼맨 서비스'도 운영된다.

또한 '전주 착한 큰장터'는 다음 달 11일 전주역 앞 찻마중길에서 사회적경제제품과 바이전주 우수제품, 전주푸드 우수 농산물 등의 특별판매를 진행한다. 장터에서는 플라마켓과 함께 홀라후트 기네스 도전, 버스킹 공연 등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시는 이와 함께 전주착한캠페인의 주요 거점과 행사장, 아파트 등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참여해 버스킹 공연 및 베란다 음악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소비촉진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착한캠페인'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시민들과 함께 '착한 홀라후트 챌린지'도 진행하고 있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또한 한 번의 시민참여 운동이 본격 추진된다"며 "공동체 정신과 끈끈한 연대를 통해 위기를 이겨내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시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합인업체 정보와 행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착한캠페인 홈페이지(jgoodjonju.kr)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전주착한캠페인'을 검색해 확인 가능하며 이를 통해 동참을 희망하는 업체의 접수도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제4회 김경희 개인전-상상과 유희 개척

내달 3일까지 덕진갤러리 36.5에서 진행

전주시 덕진구청 로비에 마련된 덕진갤러리 36.5에서 제4회 '김경희 개인전-상상과 유희'가 오는 7월 3일까지 개최된다.

김경희 작가는 한국채색화를 새롭게 실험하는 작업에 전념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채색화의 원형은 고구려 고분벽화, 신라시대 단청, 고려 불화, 조선의 초상화, 궁중회화, 민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적인 것'의 가치가 부상되고 있는 동시대에 한국채색화에 정진하고 있는 작가의 개인전은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김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작품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기에 행복과 희망을 상징하는 의미로 다양한 꽃을 소재로 한국화 특유의 고전적이면서 세련된 아름다움과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감을 표현하고자 색 표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관람자들이 밝고 환한 이미지에서 위안과 힘을 얻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작가는 늦깎이 한국화가로, 그가 가진 삶의 여정은 남다르다. 60대에 만화도로서 국립군산대



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수학하고, 동 대학원 조형예술 디자인과에 진학하여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한국화가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전념하고 있는 작가는 '한중교류전-감성과 조음하다', '전북여성미술협회전', '시간이 만든 서정'展 등의 단체전과, 2019 서울 아트쇼(서울 코엑스), 2019 대한민국미술축전 국제아트페어(일산 킨텍스),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 등의 부스전에 참여한 전시 경력이 있다. 2019년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특선 & 비구상 부문 입선과 2018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한국화 대상, 2019년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한국화 특별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도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동물복지 총괄자문관에 임채웅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 위촉

동물복지 향상·유기동물 보호 방안 제시 등 정책 자문 수행

동물친화도시를 조성 중인 전주시가 동물복지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장착했다.

시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임채웅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를 전주시 동물복지 총괄자문관으로 위촉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동물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전북대학교 동물질병진단 센터장을 역임한 임채웅 동물복지 총괄자문관은 국립공원 종 복원 사업, 멸종위기 포유류 증식사업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기획, 제안해온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알려졌다.

임 동물복지 총괄자문관은 주 1일 비상근직 2년간 근무하게 되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전략 제시 △반려동물

문화정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 방안 제시 △전주생태동물원 역할 정립 및 시설환경 개선 자문 등 전주시 동물복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임채웅 전주시 동물복지 총괄자문관은 "생물다양성 보존과 생명존중,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틀을 전주시 동물복지 정책 방향에 스며들도록 만들 것"이라며 "동물과의 공존을 통한 생명의 가치와 존엄에 대해 철학을 갖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방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선도적인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동물복지 총괄자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동물복지



전주시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임채웅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를 전주시 동물복지 총괄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정책을 시행해 시민과 동물이 더불어 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정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 재도전

전주시, 2019년 미선정 지역 보완의견 반영해 준비절차 진행

대한민국 도시재생 1번지 전주시가 2019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 미선정 지역에 대하여 2020년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재도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선정 공모에 태평·다가지역과 인후·반촌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에 서노송예술촌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사업을 공모 신청한 바 있으나 미선정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2019년 공모 평가시 제시된 평가위원의 보완의견(사업부지 사전 확보 및 생활SOC 사업계획 보강 등)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안 수립과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추진 등 공모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 하고 막바지 공모 준비상황을 점검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난 5월 코로나19 상황 속에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시의회 의결청치, 지역재생 총괄계획회 및 LH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컨설팅, 교수, 연구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끝으로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

국토부 사업 선정은 올해 중앙공모

선정에 도전하는 인후·반촌지역과 서노송예술촌은 오는 6월말까지 접수, 7월부터 평가를 거쳐 8월말 최종 선정될 사업 공모에 재도전한다고 밝혔다. 태평·다가지역은 오는 7월 3일까지 활성화계획안 공모 신청 △8월 14일까지 전라북도 평가 △9월 20일까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최종 선정한다.

앞서 전주시에서는 지난 9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진행중인 △전통문화화중심의 도시재생 △서화동예술마을 도시재생 △용머리여의주마을 도시재생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등의 추진상황을 공유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 모델 구축을 위해 전 부서의 지혜를 모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을 비롯한 전주역세권, 용머리 여의주마을, 서화동예술마을 등 4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남노송동 새마을을 비롯한 4개의 새마을을 조성사업과 다가동에 도시재생 인정사업 '다가서당 프로젝트' 등 총 12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도시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드론축구협회-포항대 국방드론항공과 '맞손'

드론축구 활성화·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드론축구 중추도시 전주시가 드론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포항대학교 국방드론항공공과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대한드론축구협회는 지난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드론축구 상설체험장에서 포항대학교 국방드론항공공과와 드론축구 활성화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협회 주관 드론축구대회 입상자의 입사전형 반영 △

산업체 견학 등 현장교육 기회 제공 △강사 지원 등 인적교류 활성화 △우수인력 취업연계 강화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6년 최첨단 탄소소재와 드론, ICT(정보통신기술)를 융·복합해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 보급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 드론축구 상설체험장에 협회 사무국을 개소하는 등 드론축구의 기반을 다져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승진 내정자 명단 발표

총 136명으로 박용자

이강준 등 4급 승진 2명

전주시가 지난 26일 승진 내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승진 내정자들은 총 136명으로 이 중 4급 승진 내정자는 박용자 농업기술센터 먹거리 정책과장과 이강준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장 등 2명이다.

이외에 5급 14명, 6급 46명, 8급 37명, 9급 37명 등이 있다.

(5급 승진 내정자 명단 15면)



박용자 이강준

선발 기준은 승진임용 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법정배수 범위내에서 승진후 보자명부 서열, 국별 인배, 현직급 근속기간 등을 고려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